

월요광장

슈퍼 에이저(Super-ager)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지난주에 ‘춘섭아’라는 독립 영화를 보았다. 중흥동을 배경으로 2017년도에 제작된 마을 영화이다. 이 영화에 어머니가 배우로 출연해서 재미와 감동이 더 컸다. 전체 출연 배우 중에 78세로 최고령이다. 작년엔 배우 오디션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돌아보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고향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오히려 더 바빠지셨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다. 하모니카를 배우고, 합창반에 나가고,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

울렀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화한다는 게 상식이다. 심한 경우 치매로 고생한다. 치매는 65세에서 대략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이후 5년 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 분들도 많다. 사실 이분들은 의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의학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인지 신경학 팀은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들 중에서도 나이에 비해 젊은 뇌를 지니고 있는 이들을 연구했다. 성공적인 노화의 비결을 찾고 싶은 것이었다. 이 팀은 신경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연령대에 비해 20~30년 젊은 인지 기능을 가진 80~90세의 노인들을 60여 명 선별했다.

연구 팀은 이들을 ‘슈퍼 에이저’(Super-ager)라고 이름 붙이고, 2007년도부터 이들의 뇌와 생활 방식을 연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슈퍼 에이저들의 뇌는 세 가지 면에서 달랐다.

첫째, 동일 연령대의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과 연관된 대뇌피질과 해마의 신경세포 손실률이 2배가량 적었다. 둘째, 눈치와 직관과 관련된 사회적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는 ‘폰 에코노모 뉴런’(Von Economo Neuron)이 동일 연령대보다 다섯 배 많았다. 셋째, 대상피질(cingulate cortex)의 앞쪽이 또래는 물론 30살 연하의 중년보다 더 두꺼웠다. 대상피질은 대뇌피질과 변연계 사이에 놓여 있는 부위로 자기 조절과 주의력 등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즉, 슈퍼 에이저들은 단지 기억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자기 조절력의 뇌 영역이 더 뛰어났다. 이들의 두뇌 특징은 생활 방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슈퍼 에이저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상의 공통점이 관찰되었다. 첫째,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난이도

가 있는 활동에 뛰어들다는 점이다. 이들은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춤 배우기, 봉사 활동 등 난이도가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나이 들어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와 봉사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아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아래 세대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알려고 하며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한 번씩 무언가 깜박 잊을 때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러나 노스웨스턴 대학의 슈퍼 에이저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걱정은 기우일 듯 싶다.

정작 치매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점점 새로운 경험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이들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사이 돌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 가면 되겠다 싶다.

법조칼럼

행복한 건축을 위하여



조선희
변호사

어느 작가는 집은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소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도시민들은 전생태와 같은 바깥 일을 마치고 귀가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필자는 최근 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모씨(여·50) 씨의 사연을 접하고 일반인들이 행복하게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박씨는 시공업자 K씨로부터 “3개월 내 완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년 4월 시공업자 K씨와 건축주 직영 공사 형태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공업자 K씨는 골조 공사만 마무리한 후 “나머지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해버렸다.

박씨는 K씨가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더 달라 해서 공사비를 주었지만 K씨는 이후 행적을 감춰 버렸다.

박씨의 남편은 K씨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하도급 업체 사장들로부터 잡적해버린 K씨 대신 건축주인 박씨가 책임이라는 협박성 전화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신장에 문제가 생겨 2017년 1월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필자는 상담 과정 내내 울기만 하던 박씨를 다독이고, 우선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K씨를 만나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후발 업체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건설 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돼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일반인이 시공업자와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

서 시공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거나 건축주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받고도 부분 공사를 맡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이 계속되는 한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씨처럼 건축에 대해 별 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최저가를 부르는 무면허 업자와 허술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분쟁은 예고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건축을 하려는 일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우선은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

도급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필자는 공사를 수주할 때는 최저가 공사 금액을 제시한 후 나중에 거액의 추가 공사 금액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시공업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시공업자들의 못된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급 계약이나 견적서, 설계도는 잘 따져 봐야 한다.

다음으로 시공업자의 자격, 시공 실적 등 증명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시공업자의 인적 사항만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시공업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한 장 찍어 두는 것이 나중에 는 요긴하게 쓰인다.

만일을 대비해 시공업자의 요구 사항,

건축 과정에서 변동 사항 등을 기재하는 건축일지도 써두는 것도 지혜다.

시공업자가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받은 날짜를 기재하고 시공업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둬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 공사금 청구 소송을 당한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업자가 제시했던 견적서 한 장이 유력한 증거로 평가돼 건축소송의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목격했다.

그 밖에도 공사 대금을 선 지급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시공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공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뒤 ‘나 몰라’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공사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적어도 하도급 업체 등의 추가 분쟁을 막을 것도 조언하고 싶다.

모든 법률 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축 같은 문제는 사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서류나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더 이상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 및 건축 문화가 선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민선 7기 광주·전남 지역 시·군·구 발전 구상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6·13 지방 선거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광주·전남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민선 7기는 그러한 정책 환경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작년 12월부터 27개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 구상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재작년과 작년 초 대선 공약 과제 발굴과 작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계한 시책 발굴에 이어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아젠다 발굴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지방 선거는 우리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의 시·군·구 담당 박사 30여 명은 광주·전남 곳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연구원은 최근 광주·전남 27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권역별 워크숍은 지자체의 기획실정과 기획계장 등 지역 발전 정책과 기획을 맡은 간부진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듣는 자리였다.

광주·전남 시·군·구 ‘기획동’과의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민선 7기 우리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우선, 예전 지역의 목소리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모아졌으나 이번에는 크게 달랐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산단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도 중요한 현안이었으나 그 지향성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모아졌다. 이른바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대부분 기획 책임자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역력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이 지역 발전에서 중요한 독립 변수 또는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청년층 등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의 주요 키워드인 ‘4차 산업 혁명’은 몇몇 시·군을 제외하면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4차 산업 혁명이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주요 현안일 수 있으나 시·군·구 차원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 하나 지역의 주요 목소리는 시·군·구 마다 민선 7기 지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찾았다면, 지금은 생태와 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1·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나아가 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생태와 문화 관광을 더욱 추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지자체는 해당 지자

체내 센터, 파크, 지구, 권역, 단지, 특구, 클러스터, 벨리, 타운 등 특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간 내 주요 시설에 대한 화려한 작명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요컨대, 앞서 언급한 지역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맨 먼저 떠오른 단어는 ‘지방 자치’였다. 지방 자치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역 발전의 모습, 즉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다양성은 여전히 동일성내 다양성으로, 일정 부분 한계도 보였다. 중앙 정부가 짜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타 지역이나 지자체의 사례를 모방하는 지역 발전 구상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여기서 광주·전남 정책연구 플랫폼으로서 광주전남연구원의 새로운 역할을 실감했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혁신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가 민선 7기 지역 발전에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경남 말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담한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의 대형 참사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종병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대 이상이 26명이나 됐다. 병상에 누운 채 꼼짝도 못하고 유독 가스를 마신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긴박한 상황 속에 대피가 쉽지 않았던 피난 약자들이 고스란히 화마에 희생된 것이다.

최근 화재로 대형 피해가 난 곳은 병원이나 스포츠센터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평소 많은 사람이 오가는 데다 내부가 복잡한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용객들이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소방 시설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세종병원에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감지해 물을 뿌려 주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바닥 면적이

394.78㎡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제천시 스포츠센터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의 대형 참사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의료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닥 면적 600㎡ 이상이거나 입원 환자가 500명이 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 중소병원은 제외돼 왔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광주·전남 요양병원들도 137곳 가운데 82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스프링클러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초기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장비다. 따라서 이런 중소병원에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불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과 배연시설 설치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대책 실적 위주보다 실효성 있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의 각’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실업 해결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 주는 것으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의 절박함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

후 최악이다. 구직 포기자와 더 나은 일 자리를 찾는 아르바이트 청년까지 합한 제1청년 실업률은 22.7%에 달한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보다 8.6% 줄어 3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청년 실업 해결의 근본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골라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단계적 공공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실업 해결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 주는 것으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올해 30개 사업에 4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2921개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는 실적 위주의 프로그램 추진이나 지원보다는 민간과 공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과학계는 ‘불가능하다’라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에 나오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카오스’(Chaos)는 초기 조건이 최종 결과에 극도로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말한다. 흔히 ‘나비 효과’로 설명되는데, 베이징 하늘을 나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바다 건너 뉴욕에선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

다는 이야기다.

정치와 카오스

물론 나비의 날갯짓은 뉴욕에서 태풍을 발생시킨 무수한 초기 조건의 하나일 뿐이지만, 카오스 이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특정 사건의 초기 조건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베이징 나비의 날갯짓, 서울 직장인의 재채기 등 다양하고 필수적인 초기 조건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뉴욕의 태풍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공 지능까지 등장한 지금, 아무리 미세하고 많은 초기 조건이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할 터다.

한데 현대 과학은 왜 ‘초기 조건을 완

요즘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누구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정치는 카오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2016년 4월 총선 결과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 국민의당이 20개월 만에 5%의 낮은 지지율이 허덕이며 파탄(破綻)의 위기에 직면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수한 초기 조건들이 현재의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미래는 알 수 없다지만 ‘호남의 민심을 살피지 못한 것’이 나비의 날갯짓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2-019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